

◆ 연합 한인 형제회 웹사이트 <http://www.koreansfo.org> ◆



# 평화의 도구

(제 150 호)

06년 2월

\*영적보조자 : 이 규성(바오로),sfo (714)537-1974  
 \*회 장 : 이 병재(힐라리오),sfo (714)879-8679  
 \*부회장 : 오 수원(바오로), sfo (714)998-2898  
 \*서 기 : 유 근숙(울리아),sfo (714)870-7650  
 \*회 계 : 박 용원(야고보),sfo (562)924-5840  
 \*양 성 : 박 영철(요한),sfo (562)867-5499  
 \*시도직 : 이 용석(안또니오),sfo (714)229-0914

▶월례회: 매월 4째 일요일 오후 12:30분 ▶장소: 성 토마스 성당 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 E-MAIL

\*김 용철(도미니꼬)신부: kycofm@hanmail.net  
 \*이 규성(바 오 로): paullee92840@yahoo.com  
 \*이 현일(어거스틴): bonumsfo@yahoo.com  
 \*유 근숙(울 리 아): juliayoo@sbcglobal.net  
 \*이 세홍(바 오 로): paulsaelee@yahoo.com  
 \*이 용석(안또니오): ysleesfo@yahoo.com

\*박 영철(요 한): johnparksfo@yahoo.co.kr  
 \*박 용원(야 고 보): jywpark@yahoo.com  
 \*박 영환(빅토리노): ypark98@yahoo.com  
 \*이 용석(안또니오): ysleesfo@yahoo.com  
 \*백 호명(프란치스코): frankb@koreansfo.org

## 형제회 소식

### ■ 가톨릭 워커 봉사

지난 2월 5(일) -산타아나 가톨릭 워커에서 무숙자들을 위하여 형제회 및 평화의 모후 단원과 음식 봉사하였습니다.

### ■ 형제회 15년 기록 편찬 위원회

오는 2008년 오렌지카운티 형제회 설립 15주년이 됩니다. 형제회 15주년의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보기 위하여 15년사 편찬을 준비하고 있으며 편집 위원회를 발족하여 지난 2월 12일 첫모임을 가졌습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원장: 박 승호(바오로),
- 재정 섭외: 이 병재(힐라리오)
- 서 기: 이 세홍(바오로)
- 회 계: 김 창순(테레사)
- 위 원: 이 규성(바오로), 김 영배(요한)  
 이 현일(어거스틴), 오 수원(바오로)  
 유 근숙(울리아), 박 용원(야고보)

☞ 형제회 15년사 편찬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사진, 기록등..) 가 있으시면 위원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사도직 분과

사도직 분과를 담당하셨던 박영환(빅토리노) 형제가 건강 상의 이유로 사임하고 이용석(안또니오) 형제가 사도직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 형제회 새 회원 신청 접수

재속 프란치스코 오렌지카운티 형제회에서는 새 회원 가입을 오는 3월부터 신청받습니다. 새 회원은 그동안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정식으로 양성교육을 받게 됩니다. 주위의 관심있는 분 들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목 상】

## 사순절

사람들은 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된다. 일상적인 삶에서 반성을 하고 또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신앙인들에게는 전례를 통하여 더욱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많이 갖는다. 특히 사순 시기의 전례는 인생의 광야를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

허영과 위선에 가득찬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듯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생화하기 위한 40일의 기간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신앙과 인간적 성숙의 바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세속적 유혹과 불안으로 인해 앓기 쉬운 신앙인의 자세를 사순 기간의 삶을 통해서 되찾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순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에 모든 신앙인들은 "사람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창세기 3,19)는 말씀과 함께 머리에 재를 얹게 되는 상징적인 표현 속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지점을 생각하고 거기에 비추어 자신들의 사람을 바로잡기를 요청 받고 있는 것이다. 즉 세례 때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되찾아 바른 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이 사순 시기이다.

40이라는 수의 의미는 참회와 속죄로 우리 생활 전체를 혁신하고 살아 계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합당한 준비를 하는 기간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순 시기 40일의 의미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기를 초대하는 하느님이 마련한 은총의 시기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사순 시기에 우리가 조용한 마음으로 지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만 결코 부정적인 시간이 아니라 희망에 부풀어 생명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시기인 것이다.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재의 수요일에 재를 받으며 우리는 인생의 무상함인 것을 인정하며 죽음 앞에서 의연할 수 있는 확고한 생사관을 확립하려는 결심이 필요한 것이다. 사순 시기의 절정인 성 주간 재의 수요일로 시작한 사순 시기는 성 주간에 이르러

절정을 이룬다.

성 주간은 성지 주일부터 시작되는 사순 시기의 마지막 한 주간이다. 성 주간 전례는 우리 신앙 생활의 중심이 되는 전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성 삼일과 부활 성야의 전례가 그 핵심이다.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생전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수난과 죽음,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분의 행적을 다시 더듬게 되고 생전에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말씀과 행적들을 공동체 안에서 생활 속에 표현하고 생활화한 것이 바로 전례인 것이다.

\*\*\*\*\*

## 사랑을 위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요한 복음 저자는 "빛을 증거하러 온 이"라고 했고,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예언자보다도 위대한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또 다시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이라도 이 사람보다는 크다고 하십니다. 하늘나라에도 높낮이의 계급이 있단 말씀인가요?

물론 천사들의 등급이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 하늘나라에도 높낮이가 있기는 한가 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는 모두가 행복한 곳이라고 합니다. 높낮이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내 처지가 어떻든 그 상황을 가장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이지요.  
하늘나라는 분명히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구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했지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세례자 요한의 설교가 자주 귀에 거슬렸을 겁니다. 그들에게 듣기 싫은 말을 했으니까요...

우리는 가끔씩,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참아야 할 때가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애써 해야 할 때가 있으며,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고,  
듣고 싶은 말을 꼭 참고 듣지 않으려고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사랑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들은 작아지는 체험을 하는 순간들이고 동시에 커지는 체험을 하는 순간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이런 순간들을 기쁘게 누리고자 한다면 참으로 누려질 수 있는 거겠지요?!~ 거기에는 참 긍정(빛)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 하늘나라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는 일일 겁니다.

- 호명환 신부 OFM-

\*\*\*\*\*

【프란치스칸 러시아 선교】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요.  
미련스럽게..**

## T 평화와 선

긴 여정을 마치고 다시 우수리스크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다시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우수리스크를 떠났던 것이 지난, 성탄절 이후였습니다. 그런 후, 몇몇의 은인들을 만난 후, 서울에서 다시 비자를 갱신하고 돌아오자마자, 다시 세인 피터스버그(영어명)로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러시아-카자흐스탄에서 사목하는 작은 형제

회원들이 1년마다 연례 회의가 개최되는데, 올해에는 러시아의 영원한 도시, 상 피제르부르크(러시아명)에서 26명의 형제들이 모여서 나눔과 회의 그리고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수리스크에서 상 피제르부르크는 비행기로만 약 9시 40분동안 가야하는 곳입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실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러시아-카자흐스탄에서 사목하는 작은 형제회는 국제 공동체입니다. 약 9개 나라의 형제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생활하면서 사목합니다. 한국, 미국, 이태리, 벨라루시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일본, 슬로바키, 그리고 러시아 형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형제들이 모여서 생활하다보니, 필요한 것은 일치성 안에서의 개방성입니다. 무엇보다도 언어가 다양하지만, 현재 저희들은 모두 러시아라는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문화적 배경의 다양함으로 인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하는 개방성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오래간 만에 모인 한국 형제들이(카자흐스탄의 알마타에 두명-김디에고, 이로제로-, 러시아의 우수리스크-황보곤라도, 김도미니꼬) 함께 대화와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작은 에피소드를 소개할까 합니다.

회의를 위해 모든 형제들이 머문 곳은 상 피제르부르크의 가톨릭 신학교였습니다. 물론 식사는 모두가 러시아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만났으니, 어디 한국 음식이 그리운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요? 마침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구정이 있었기에, 한국 식당을 찾아 맛있고, 그 귀한 떡국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이 자리를 빌어 상피제르부르크의 아리랑 식당 자매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런데 먹지 않던, 음식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그 맛의 여운을 잊지 못하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맛을 잊지 않으려고, 가게에서 한국 컵라면을 사들고 저녁에 형제적 친교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원만한 수퍼 마켓에 가면 한국 음식을 판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부터 시작됩니다. 컵라면은 사왔는데, 연장(?)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먹을까 고민하다. 다른 외국 신부님이 사용하던 방 구석 구석을 찾아도 라면을 먹을 연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라면을 먹으려는 형제가 책 상 위에 좋은 것이 있다면 아주 반가운 기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찾아낸 것이, 글썄... '가위'랍니다...내 생전 가위로 라면 먹은 사람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고, 힘겨운 강의를 듣는 와중에서도 우리는 가끔씩 모여 그동안 나누지 못한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면 남은 것을 찾는 와중에 한 분이 라면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으로 드셨냐고 물으니, 자꾸 포크를 가게에서 샀다는 것을 잊어버려, 그냥 찢술 뒤로 라면을 먹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우리 모두 뒤로 자빠졌답니다.  
"한국 사람, 어디가서도 살아남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요. 미련스럽게..

러시아에서 06년 2월 19일  
여러분의 아들 도미니코 형제, OFM

\*\*\*\*\*

【좋은 글】

**마음에 무엇을 담겠습니까?**

병(瓶)에 물을 담으면 '물병' 이 되고,  
꽃을 담으면 '꽃병'  
꿀을 담으면 '꿀병' 이 됩니다.  
통(桶)에 물을 담으면 '물통' 이 되고,  
똥을 담으면 '똥통'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 이 됩니다.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 그릇' 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 그릇'

김치를 담으면 '김치 그릇' 이 됩니다.

병(瓶)이나 통(桶)이나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좋은 쓰임으로 쓸 수도 있고  
허드레 일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꿀 병이나 물 통이나 밥 그릇 등  
좋은 것을 담은 것들은  
자주 담아 깨끗하게 하고  
좋은 대접을 받는 대신,  
좋다고 여기지 않는 것을 담은  
것들은 한 번 쓰고 버리거나,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하려는 나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 통, 그릇들은  
함부로 마구 다루면 깨어지거나  
부서져서 곧 못쓰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 도 이 것들과 똑  
같아서,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좋은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된 대접을  
받아 천덕꾸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람 대접' 을 받느냐  
아니냐로 달라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불만, 시기, 불평등  
좋지 않은 것들을 가득 담아두면  
욕심쟁이 심술꾸러기가 되는 것이고

감사, 사랑, 겸손등  
좋은 것들을 담아두면 남들로부터  
대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 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 좋은글' 중에서-